



정주영 선대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기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HD현대

미래성장 핵심 동력 ‘도전 정신’, 정의선·정기선 3세로 잇는다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HD현대 부회장〉

정주영 명예회장 타계 23주기

故 정주영 회장, 현대차공업·현대토건 시작 건설·조선·전자 등 韓 최대 기업집단 성장
정의선 회장, 수소 등 친환경 중심 경쟁력 ↑ 자율주행·로보틱스·UAM 등에 투자 단행
정기선 부회장, 지난해 HD현대 문패 교체 중공업서 AI·로봇 등 사업영역 확장 속도

아산(峨山)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별세 한지 23주기(21일)를 맞았다. 세월은 흘러도 여전히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 3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정주영 회장의 정신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핵심 정신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주영 회장은 1946년 세운 현대자동차공업사, 1947년에 세운 현대토건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업인의 길에 걸었다. 1950년 두 회사를 합병해

현대건설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현대자동차, 1973년 현대조선중공업, 1983년 현대전자를 설립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다졌다. 1981년에는 서울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아 5개월 뒤 ‘바덴바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후 현대그룹은 1990년대 건설과 조선, 자동차, 유통, 전자, 금융 등 주요 산업 분야를 망라한 국내 최대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특히 정주영 회장은 산업 뿐만 아니라 대북 사업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주영 회장은 1998년 6월 17일 85세 고령에 소 500마리를 끌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서산 공장에 있던 소를 몰고 갔고 이는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이같은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은 2세대를 넘어 3세대로 흘러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제조업의 변화를 민첩하게 반응하며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취임 4년차를 맞은 정의선 회장은 수소, 전동화, 미래 모빌리티 등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은 차량 고급화와 고부가가치차 및 전기차 공급 확대 전략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연속 두 번째로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판매량 3위를 차지할 수 있던 것도 이같은 도전 덕분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략을 변경하고 있지만 정 회장은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2025년 전략으로 전기·수소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에 투자하고 있다. 단순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도 조선·중공업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통한 경영 성과를 내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그룹이란 사명 대신, HD현대로 문패를 교체하고 ‘도전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정 부회장은 기존 조선·중공업에서 수소·에너지·인공지능(AI)·로봇 등으로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2021년 그룹의 수소 사업 비전인 ‘수소 드림 2030’을 통해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까지 HD현대 전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한 수소밸류체인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 투자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2022년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에 대한 투자계약, 세계 최고 빅데이터 기업인 미국 팔란티어와의 MOU 체결 등 사업 영역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22년 현대중공업그룹 AI포럼 개최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새로운 50년에 있어 AI가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AI에 대한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이같은 변화에도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정신은 이어가고 있다. 범현대가의 고유 심볼을 교체했지만 판교 사옥 곳곳에 정주영 어록을 새겨넣었다. HD그룹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을 모토로, 아산 서거 10주기에 설립한 아산나눔재단을 통한 창업정신의 강조도 지속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제작결함시정 사전공고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개요
 - 제조사: 현대자동차(주) (JUNO) S11 모델 차량에서 전조등의 광도(자동차 안전기준 제 75 조), 차폭등의 색도(자동차 안전기준 제 77 조의 2, 방형자등의 광도(자동차 안전기준 제 79 조)가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함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2. 결함 대상 및 대상 기간

차명	형식	제작기간	대상대수		
			판매	미판매	계
주노(JUNO)	S11	2020.06.22~2021.02.04	352대	256대	608대

3. 제작결함 내용
 - 결함: 결함 있는 구조 장치: 동화장치 / 전조등, 차폭등, 방형자등
 - 원인: 전조등의 광도, 차폭등의 색도, 방형자등의 광도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함

4. 제작결함 시정 시행 사항
 - 전조등: 야간 주행 중 시야 확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차폭등: 차량의 외관인지 지향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방형자등: 좌·우 회전 시 상대 주행차 및 보행자로 하여금 인지 지향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5. 결함 시정기간, 장소 및 문의처
 - 시정기간: 마정(개선통 확보 후 시정조치 개시 예정)
 - 시정장소: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 시정관련 예약제기 및 문의처: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010-2385-5007
 - 시정방법: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

6. 자동차관리법 제 31 조의 2 에 따라 자체 시정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의거하여 자체 시정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 보상 대상기간: 2021.03.11 부터
 - 보상 신청장소: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 보상신청 연락처: 고객센터 010-2385-5007
 - 현대자동차 사유로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제작결함 시정 비용부담 방법: 대상차량 1대당 무상수리

OTOS
 경기도 안성시 동안구 읍내로 415, 두산벤처대입 523 호 TEL: 031-478-3225/FAX: 0505-265-4582

“주주가치 제고위해 9.8조 배당... 신사업 발굴 강화”

삼성전자,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한총희 대표 “AI·고객경험·ESG혁신 등 신제품·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조기 발굴”

삼성전자가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올해부터 신사업 발굴을 주력하고 반도체 세계 1위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배당 계획도 전했다. 한총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20일 오전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AI(인공지능), 고객 경험, ESG 혁신을 이어가고 다양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9조 8000억 배당 지급 한총희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3년은 고급리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업황 둔화로 경영 여건이 어려웠다”면서 “연간 실적은 매출 258조9000억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과 선제적 시설을 확대하는 등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 속에 2023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 914억 달러로 글로벌 톱5의 위상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날 정기 주주총에는 600여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삼성전자의 총 주주 총수는 467만2130명이다. 한 부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3년 기준 연간 9조8000억원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바이스솔루션(DX) 부문장인 한 부회장은 삼성 디바이스를 인공지능(AI)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스마트폰 등 갤럭시 전제품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일반 가전제품을 지능형 홈가전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전사적 AI 역량을 높여 차세대 전장 로봇, 디지털 헬스 등 신사업 육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사업 주력, “반도체 세계 1위 되찾을 것”
 경계한 삼성전자 사장은 올해 반도체(DS)부문의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경 사장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63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DS부문의 매출도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본격 회복과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2~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를 되찾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메모리는 12나노급 32Gb(기가비트) DDR5 D램을 활용한 128Gb(기가비트) 대용량 모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12단 적층HBM 선형을 통해 HBM3·HBM3E 시장의 주도권도 찾겠다고 강조했다. 경 사장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선단 공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 최초 GAA(게이트올러라운드) 3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제품의 안정적인 양산을 시작하고 2025년 GAA 2나노 선단 공정의 양산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